내 깊은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와서 떠 먹을 수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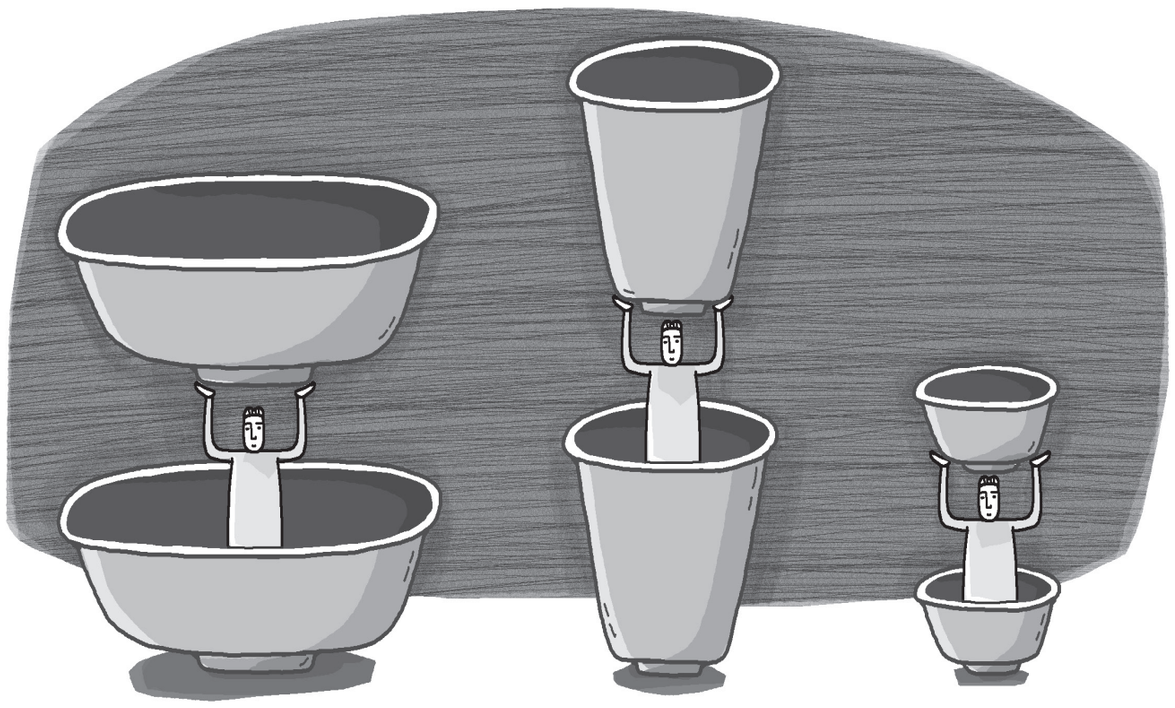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한층 더 분발해서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에 가면 싱그럽고 물이 좋죠? 그러니 물은 말없이 날더러 물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을 볼 때에 꽃도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모진 풀뿌리를 봤을 때도 나를 보고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 만물은 다 나같이 살라 하니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봐서 지극하게 믿고, 믿는 것을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믿을 때에, 진실하게 믿고 놓는 작업을 할 때에, 맡겨 놓는 작업을 할 때에 일체 만법이 다 그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그 속에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하게 구하는 법도 나오고 진실하게 깨닫는 도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부닥치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바깥으로 끄달리고들 하십니다. 안으로부터인데 말입니다.

안에다 물을 줘야 바깥의 나무들이 잘 자라듯이 벌써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알아들었다고, 주인공에 놓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과 믿음과 구함이 진실해야만 하는데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도다.'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둘로 보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한테서만이 이끌어 줌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모든 해결은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증득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속에서만이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곧 죽어도 옳은 거는 옳게 안으로 놓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부닥침이 없다면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한 철 날 때에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만 요다음 생에…, 아니, 나고 들고 하기 이전에, 생하고 멸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유스럽게 보고, 자유스럽게 듣고, 자유스럽게 남을 알고, 자유스럽게 어디서 온 걸 알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스럽게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다면 그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면 스스로 법신이 되고 스스로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바빠서 못 온다, 뭐, 주인공 찾는 거니까 집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교수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네 아들딸들을 학교로 보냅니까? 왜 내 집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꼭 남의 의사한테 맡깁니까? 내 집 아이는 내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그 마음이 그게,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 해도 괜찮건만 내 자식이라는 그 착에 의해서 수술하는 칼을 못 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온다는 그 점을 자비라고 합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신도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네 가지를 간추려서 부족함을 무릅쓰고 스님께 여쭤 볼까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 육신을 벗고 다음 생에 새로이 몸을 얻는 윤회의 과정에서 새로 태어날 영혼들은 업식으로 인하여 육신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도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생각하면 그 업식이 무슨 까닭으로 소, 돼지 또는 인간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는지요?

큰스님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 다 살고 갈 때에는 다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대문 안에서나 고하고 바깥으로는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게 됩니다. 또 자식, 부부 또는 권세를 누렸다 하면 따르던 친구들도 동구 바깥에서만이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식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산 것대로 말입니다.

독하게 살았으면 독사가 될 것이요, 남이 먹거나 말거나 사기라도 쳐서 먹으려고 하는 돼지같이 살았으면 돼지가 될 것입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우주 법계에서 알고 있으니깐요. 항상 직결돼 있다고 그랬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만큼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 여하에 따라서 업식이 자기의 본성을 모두 가려서 눈이 뜨이지 못해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뜨이지 못해서 듣지도 못하고,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돼지가 접하는지, 새들이 접하는지, 고양이가 접하는지, 사람이 접하는지 그거를 통히 분간을 못 해, 눈이 뜨이질 못하고 귀가 뜨이질 못해서. 그 업식으로서만 남아서 그저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잠자리하는 그 뜻만 알고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돼지 소굴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것이고, 사람 소굴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 한 대로죠. 자동적으로 그 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점에 놓여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십시오. 배는 배대로 놓여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습니다. 일체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금은 금방으로 갈 것이고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운전사들도 짐차를 하는 사람들은 구역 구역 맡아 가지고선 그 짐차들끼리 모입니다. 그건 누가 모여라, 모이지 말라 하기 이전에 그런 차원에 의해서 모두 모이게끔 돼 있죠. 그러니만큼 자동적으로 그렇게 업식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를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가 만들고 가는 거죠, 자기가 짓고.

그러니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자기 업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또 마음공부 하는 스님네들로 하여금 선업도 놓고 악업도 놔라 이러는 것입니다. 악업을 지을 때는 선업도 지을 것이요, 선업을 지을 때는 악업도 지을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양면을 다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남을 탓하리오. 그게 다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자1(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되돌아보면 마음이란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며 불생불멸 하는 한마음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큰스님 생멸이라 하는 것이 불생불멸이

☞ 16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